

“순천만국가정원서 크리스마스 추억 남겨요”

순천만국가정원이 올 겨울 따뜻한 빛과 이야기로 채워진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산타가든워크’를 운영한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정원 곳곳에 조명이 더해지고, 체험과 이벤트, 공연이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겨울 정원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타가든워크는 단순한 연말 이벤트를 넘어 정원에 ‘마무는 즐거움’을 더하는 축제다.

낮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정원 전반에 펼쳐지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감성적인 원터빌리지의 풍경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산타가든 주요 스팟을 따라 걸으며 스티커를 모으는 스티커 투어를 통해 크리스마스 정원 곳곳을 자연스럽게 둘러보게 된다.

여기에 SNS 팔로우 이벤트와 산타의

시, 내일까지 ‘산타가든 워크’…겨울정원 경험 선사

스티커 투어·게임 챌린지 등 체험형 콘텐츠 가득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내 산타의 집.

비밀 메시지를 찾는 보물찾기 이벤트가 더해져, 정원을 걷는 재미에 참여의 즐거움이 한층 더해진다.

소원을 적어 헤이트 트리에 걸어보는 ‘마음 트리존’은 연말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되며, 빨강·초록

으로 한 컬리파스 이벤트는 정원 곳곳에 크리스마스의 색감을 더한다.

또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사진 부스, 진저주기 포장 체험, 오너먼트 만들기 체험, 산타와 루돌프로 변신한 배우들과 함께하는 게임 챌린지 등 체험형 콘텐츠가 정원 전반

에 마련된다.

이번 산타가든 워크의 하이라이트는 기존 관람차를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새롭게 연출한 ‘산타버스’와 산타가든 위크 기간에만 한정 운영되는 ‘회전목마’이다.

현장 예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장 전부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드립 호 선착장 인근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려 크리스마스 정원을 감성적인 음악으로 채운다. 체험과 이벤트로 활기를 더한 낮의 정원이 선율과 함께 잔잔한 휴식의 공간으로 이어지며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완성한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산타가든 워크는 겨울 정원에 빛과 이야기를 더해 연말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축제다”며 “연말연시 순천에 머물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리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대형트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엑스포기념관 소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협 가동

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1차 회의 개최

(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엑스포기념관 소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직위는 ‘무사고, 안전박람회’를 최우

한층 강화해 안전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돌산군역 교통혼잡에 따른 주행사

장인 진모지구 정체 우려와 긴급상황 시 병원 후송 등 육상·해상교통 대책에 효율적 계획이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제

시된 현장의 의견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섬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 확보

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박람회장 운영이 최우선이다”며 “특히 이번 섬박람회는 행사장이 4곳으로 분산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므로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람

고흥,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연구개발 착수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주민과 이익공유 헛빛연금 준비도

고흥군은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연구개발을 위해 민·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팔영 산출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주유에너지)과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30억원을 투입한 국가 정책사업의 일부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8년(과제수행 3년, 성과유지 5년)간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기후환경과 토양 특성에 최적화된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고흥의 주요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설비 구조와 광환경을 분석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실증단지 부지 제공과 배전선로 설치 등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주관기관인 주유에너지는 설비 설계 및 시공과 기술관리를 담당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작물 생육환경 검토와 데이

터 검증 등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R&D 사업에는 고흥 지역 향토기업인 (유) 흥양테크, (유) 흥양에너지, (유) 고흥해밀솔라, (유) 고흥 등이 시설물 설치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들 기업은 향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의 보급과 확산을 주도하며,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출에서 (제) 녹색에너지연구원, 주유에너지와 함께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R&D 사업을 유치했다”며 “고흥의 토양과 기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완성해 농영농형 태양광의 단계적 확산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77@gwangnam.co.kr

보성-교육지원청, 교육 현안 공동 대응

AI 교육센터 설치 등 논의

보성군과 보성교육지원청은 최근 보성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보성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호범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공모사업 관련 연계 협조’, ‘문화·예술·체육 분야 핵심 인재 양

성을 위한 방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AI 교육센터 설치’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전략적 연계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두 사업은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 지역 교육 주체가 공동 참여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협의회에서는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h66@

장흥 관산읍, ‘행복나눔곳간’ 오픈

주민·지역 단체 생필품·식료품 등 기부로 운영

장흥군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관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참여형 나눔 복지 공간인 ‘행복나눔곳간’ 오픈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행복나눔곳간’은 주민과 지역 단체가 기부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이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방문 전달을 통해 지원하는 열린 복지 플랫폼이다.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부자는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나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관산읍은 지난 2월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6월에는 냉장고와 전열대 등 물품 보관시설을 설치해 공간 조성을 완료했다.

위탁 운영은 관산읍복지기동대가 맡아 물품 수령·분류·비치·전달·기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유양선 관산읍장은 “행복나눔곳간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지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복지 실천이다”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드는 관산을 대표 복지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곡성, 산림유역 관리…산사태 예방 강화

취약지역 사방댐·계류 보전 등 군민 안전 최우선

곡성군은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고달픈 호곡리 산

106번지 일원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완료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

림 상류부에서 하류부까지

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

로 보고 계류, 사방시설 등을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수원 향양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10억원이 투입됐다.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방댐을 설치하고 계류를 정비해 재해로부터

계류를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

리 2026년에는 오곡면 송정리와 목사동

면 수곡리 등 2개소에 추가로 산림유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재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유빈 기자

